

탄핵 후 한층 누그러진 중국 사드 보복

中 경찰, 과격 반한 시위 차단 롯데 불매 등 경제 보복은 지속 차기 정부와 관계 개선 염두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롯데그룹 경영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보복을 가하면서 과격 시위는 막는 등 양 갈래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롯데 불매 운동,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금지, 한국 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사드 보복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인을 겨냥한 폭행 행위나 반한(反韓) 집단 시위는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차기 한국 정부와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집단

시위의 불뚱이 어디로 될지 모른다는 불안 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반일 시위 당시 중국 정부가 급제동을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후 사드 발사대 일부까지 한국에 반입되면서 중국 내 사드 반대 및 반한 분위기는 이달 초에 극에 달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한 회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구두 지시했다. 한국행 단체관광은 물론 자유 여행이더라도 온·오프 여행사를 통해 항공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금지했다.

한류 드라마와 예능에 이어 애니메이션에까지 사드 보복도 시작됐다. 중국 항저우(杭州)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 측은 지난 8일 한국관의 설치와 한국업체에 대한 시설 대여를 불허하는 통보를 했다. 이

유는 소방안전관리법 위반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현지 롯데마트에 대해 대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내세운 사유와 같다.

중국 최대 게임사이자 유명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던 온라인 마케팅 상품의 발표회를 돌연 차후 일정 공지 없이 연기했다. 지난 8일까지 소방 시설 미흡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상하이(上海) 화동(華東)법인 점포 51개를 포함,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을 넘었다.

이런 경제적인 제재와 달리 과격 시위 양상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만 해도 사드 반대 및 반한 시위에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주말 각 지역의 롯데마트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됐다는 풍문이 나돌자

중국 취약 지역에 공안들과 경찰차 등을 대거 배치해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지난 10일 산둥(山東) 성 웨이하이(威海) 시 한인타운인 '한라방'(韓樂坊)에서 열리기로 했던 반한 집회는 공안당국의 경계 강화로 무산됐다. 지난 11일 베이징 왕징(望京) 롯데마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규모 시위 또한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0일 사드 불매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은 지속하겠지만 한국인을 겨냥한 과격한 행위나 시위는 철저히 차단하는 양 갈래 해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남북조 말기 무장 후경

후경(侯景, 503-552)은 동위 왕조의 장군으로 자는 만경이다. 남조의 양나라에 투항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양나라를 사실상 멸망의 길로 내몰았다. 스스로 한나라를 세워 제위에 올랐다.

그는 북위의 6진 가운데 하나인 회삭진의 진병 출신이다. 북위가 낙양 천도 이후 강력한 한화정책과 문치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한인 관료와 하북 지역 계급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반면에 선비족 출신의 군인세력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우림의 난과 6진의 난이다. 선무제에서 효문제 치세에 걸친 20여년간 낙양의 왕후귀족의 삶은 사치스럽게 그치지 않았다. 524년 북위 세력의 붕괴를 조래한 6진의 난이 일어났다. 528년 북위의 장군 이주영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자 그 휘

둘을 헤아려 "지금 거절하고 듣지 않는다면, 뒤에 오려는 자들의 희망을 끊을까 두렵다"며 황제를 지지했다. 무제는 그를 대장군으로 삼고 하남왕에 봉했다. 신하 주홍정이 이전에 "나라가 몇 년 뒤에 전쟁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후경의 투항 소식을 듣고 "난리의 시작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동위는 후경의 투항을 방지할 수 없었다. 이에 토벌군을 보내니 양무제도 조카인 소연명을 도둑으로 해 구원군을 보냈다. 양측의 싸움은 양나라군의 대패로 끝났다. 반세기 가까이 양나라군은 전쟁다운 전쟁을 치러 보지 못했다. 그러나 동위군은 지난 20여년간 계속 전투를 치렀다. 소연명은 동위의 포로가 되고 후경은 800여 부하를 이끌고 양나라 수군으로 도망쳤다. 다음해 동위의 고징이 화의를 청하자 후경은 불만해서 견딜 수

"한국인 관광객 잃을라"

중국 업계도 노심초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관광을 취소하는 한국인이 잇따르면서 중국 주요 관광지도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부산에서 중국 시안으로 자유여행을 다녀온 A씨 모녀는 출발 전 중국 게스트하우스와 호텔 측으로부터 10차례나 예약 확인 메일을 받았다.

사드 여파로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불안해진 현지 숙박업체가 예약 손님들에게 계속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다. A씨 모녀는 시안 현지에서 머문 기간 현지 상인과 가이드 등이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얼마나 우려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체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80~90%(여행업계 추산)에 달하는 중국 정자체의 숙박업계나 상가도 비슷한 분위기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방중 한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주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사드로 인해 냉각되었을 현지 분위기에 대한 우려와 중국 여행 제재에 대한 반발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선중 중국 노선이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중국으로 가는 패키지 여행객 중심으로 하루 150명이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 일주일 사이 중국 노선 탑승률이 10% 하락했고 하루 100명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중국의 사드 조치가 본격화하면 부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희망을 기다리는 소녀 이라크 모슬에서 임시 캠프에 피란한 여성들이 12일(현지시간) 구호 식품을 받으러 줄을 서고 있다. 이라크군과 이슬람국가(IS)의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모슬에서는 식량 가격이 폭등했다. 연합뉴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17~18일 첫 방한

렉스 틸러슨(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을 공식으로 방문한다.

틸러슨 장관은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하며, 그 전후로 일본(15~17일), 중국(18~19일)을 찾는다. 그는 취임 후 첫 3

국 방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등 역대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과는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3국 공조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특



리 보이콧(제3차 제재) 카드 등 초강수를 꺼집어낼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히 중국과의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행정부가 이르던 이달 내놓을 '트럼프 대북정책'과 맞물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위해 '세컨더

양 왕조 붕괴 원인...한왕에 등극

하로 들어갔다. 이주영은 호태후파와 효문제파의 권력 투쟁을 이용해 낙양에 들어가 호태후 일파 2천여명을 주살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후경은 갈영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정주자사에 임명됐다. 이주영이 입궐하다 주살되자 고향의 군대에 합류했다. 사도로 임명되고 정주자사를 겸한채 10만 군사를 이끌고 하남지역을 통치하였다.

고환이 죽고 그의 아들 고징이 대장군으로 정권을 장악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그는 "고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저런 선비족 애송이 따위에게 협력할 수는 없다"며 노골적으로 고징을 무시하였다. 고징은 후경의 권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란을 도모했으나 대패하자 부득이 강남의 양나라로 투항했다. 양무제 소연은 북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후경의 투항을 놓고 양나라 조정의 양분되었다. 상서복야 사거는 "근래에 위와 화전하면서 변경에 전쟁이 없었다. 지금 반역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양무제는 "후경을 얻으면 변방의 북쪽이 깨끗해질 수 있다. 기회란 얻기 어려운 것인데, 어찌 유훈성이 없는가"라고 답했다. 증신 주이가 황제의

가 없었다. 가만히 있다가 불합치 동위로 소환되니 수도 건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8월 양자강을 건너 건강으로 들어가 궁성을 포위했다. 장군 양간은 선방했지만 약 5개월 만에 궁성이 함락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시체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개천이 가득차다고 한다.

그는 병사 500여명으로 자신을 호위한채 무제를 알현했다. 86세의 무제는 여전히 관복이 있어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고 옷이 땅으로 흠뻑 젖었다. 후경은 부하 양승귀에게 "지금 황제를 보았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스스로 두렵게 한다. 하늘의 위엄이 아니겠는가? 범하기 어렵다. 다시 알현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결국 무제는 유폐되어 죽었다. 죽기 직전 입이 써서 꿀을 찾았으나 얻을 수 없었다. "하, 하" 두 번 소리 내고 죽었다고 한다.

그는 소강, 소동 등을 황제로 옹립했다. 결국에는 한왕의 지위에 올랐다가 양위를 받아 국호를 한으로 연호를 태시로 바꾸었다. 양무제의 일곱째 아들 상동왕 소역이 양승선, 진패 등 등과 함께 후경을 공격했다. 패해 도망가던 중 부하 양근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양나라는 멸망하고 557년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나라가 수립되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협계주택가 주택임대용건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정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임야]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97,129㎡ 묘지조성 및 납골당 시설용지 최적합. 감정가 7억5천만 ▶ 최저가 5억3천5백만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사무실] 전남 나주시 보산동 창고 및 사무실 토지 1,445㎡ 건물 301㎡ 감정가 3억3백 ▶ 최저가 2억1천1백
- ★ [장례식장]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9,625㎡ 건물 4,506㎡ 감정가 118억6천만 ▶ 최저가 118억 6천만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천담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무나 · 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 · 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 · 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점)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 · 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불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정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담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 대 · 임야 52,299㎡ 분할매수가 평당 4만5천 (협의가)
- ★ [토지] 전남 여수시 주상동 대로점 초등학교옆 자연녹지 대지 9,157㎡ 아파트, 상가건물 신축 최상 매매 97억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